

##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최 인 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 정 인<sup>†</sup>

다양성관리연구소

본 연구는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가 공격적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성폭력 통념에 대한 남녀 간의 시각차를 확인하고, 이어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에 성폭력 통념,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 상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60명의 학생(남자 171명, 여자 189명)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 $t$ -검증, 상관관계)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통념 중 강간통념에서는 가해자의 욕망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요인에서 남학생들이 높은 수용도를 보였으며, 성희롱 통념에 대해서는 피해과소평가 요인만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요인에서 남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한편 주 연구목적인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에 성폭력 통념,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 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인폭력수용과 반여성주의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학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에서는 개인의 폭력성을 완화하고, 성평등의식을 강화하며 성적 공격행동의 정당성 혹은 합리화를 부추기는 그릇된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는 내용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강간통념, 성희롱통념, 공격적 성행동, 성역할 태도, 성폭력, 대인폭력수용

<sup>†</sup> 교신저자 : 김정인, 다양성관리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9 금호베스트빌 1차 158-204  
E-mail : kji820@hanmail.net

## 서론

대검찰청 범죄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강간 범죄는 26,919건으로 하루 73.8건, 한 시간에 3.1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분석, 2014). 이러한 강간과 관련된 범죄발생 추이는 70년대 중반 10만 명당 5-6건이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0년도에는 10.4건으로 10건대를 넘어섰으며, 1993년에는 16건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는 14.9건(범죄분석, 2003)으로 밝혀져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국 HOSB (2009)로부터 나온 수치를 보면, 영국에서 여성들의 약 4.2%가 16세 이후에 적어도 한번은 강간을 당하였고, 모든 여성 중 19.5%가 16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성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성폭력은 대학가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에 전국대학건강사정(NCHA; 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지난 학년 동안 여대생의 2%, 남자 대학생의 0.7%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성적 삽입이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여대생의 3.2%와 남자 대학생의 1%가 동의 없는 성적 삽입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3). 미국, 뉴질랜드 및 남아프리카 등에서 실시된 다른 유사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들의 13.6%에서 25%가 어떤 형태로든 성적 공격을 자행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중 약 6-7%는 강간이거나 강간 시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Collings, 1994; Muehlenhard & Linton, 1987).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운

사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건수보다 적게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Koss(1992)는 실제로 강간 발생률은 전국 범죄 피해자 조사 결과 추정치의 6-10배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여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제 강간을 당할 확률은 대략 20%라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조사 및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서로 안면이 없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일반강간은 전체 발생 건수의 약 10-20%정도이고, 대부분의 강간이 오히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인(아는 사람)강간의 대부분이 남자친구 혹은 데이트 상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Russell, 198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3년도 상담 현황 및 분석에 의하면, 총 1,948건의 상담 접수 중 1,292건이 성폭력 사건이었는데, 피해 유형을 보면 성희롱·성추행이 754건(53%), 강간 525건(38%), 스토킹 65건(5%), 통신·사이버 61건(4%)이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74.6%는 직장, 가족, 학교, 데이트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연구(장윤경, 2002)에서도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피해 중 이성 친구나 애인에 의한 경우가 적게는 20.5%부터 많게는 3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널리 자행되는 성폭력의 유형이 바로 데이트 강간이다. 이것은 데이트 중인, 그것이 첫 데이트이든 오랫동안 만나온 관계이든 상관없이, 두 사람 간의 비동의 성행위로 정의(Shultz, Scherman, & Marshall, 2000)되는데, 미국의 경우 캠퍼스 내의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과 이경순(2002)의 연

구에서 대학생의 30%이상이 성폭력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경, 2002 재인용).

이러한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고 피해자 개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관련 증상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널리 만연되어 있는 성폭력, 특히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부분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그러한 행위들이 성폭력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들고 피해자들은 사건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성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이를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데이트 성폭력의 선행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고, 성폭력을 바라보는 그 사회의 시각을 반영하며 개인의 성폭력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성폭력 관련 통념(강간통념과 성희롱 통념)에 대해서 남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피해자 혹은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국내의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연구(강희순, 이은숙, 2010; 남원경, 2008)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연구 방법상 데이트 성폭력 연구를 위해 성경험 질문지를 사용하거나 조사대상자들에게 성폭력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험 질문지는 데이트 성폭력을 예측

하거나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직접질문 방식은 응답자가 전혀 없거나 극히 일부만이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고려하여 직접 경험 유무를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트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격적 성행동 척도로 대체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적 공격자와 비공격자로 구분하여, 이들이 성폭력 통념,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면 학내 데이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초점과 내용구성에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성폭력과 발생 원인에 관한 관점

성폭력에 관한 개념을 보면 성폭력은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강도강간,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언어, 신체, 정신적 폭력이라고 정의된다(조현빈, 2006).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에서 가해자는 주로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다.

성불평등이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폭력에는 대표적으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를 들 수 있다. 이들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남녀 불평등한 관계와 가부장제 사회문화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말한다(김양희, 2013). UN은 젠더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명명했고 1993년 12월 12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을 채택하였다. UN 등에서 이와 같이 성폭력에 대해서 개인 특성보다 사회문화적 혹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여성주의 이론이 기여한 바가 크다. 여성주의 이론에서는 성폭력 중 특히 강간을 일차적으로 남성지배에 의해서 동기화된 것으로 보며 (Baron & Straus, 1987), 강간과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우위의 체계에서 여성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기제(Brownmiller, 1975; Herman, 1990)로 작용한다고 본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강간은 현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억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남녀관계의 연장선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강간은 소수의 성도착증 환자나 일부 반사회적 범죄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일탈 행위라기보다는 일상에서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좀 더 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Anderson, 1997). 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별 역할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성, 공격적인 남성 그리고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계율을 강화함으로써 성별 격차를 확대한다. 사회의 가부장적 속성은 성별 불평등과 성역할 고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의 지속적인 발생과 합리화에 작용한다(Belknap, 2001). 강간과 강간이 유발하는 두려움은 남성들이 여성들을 종속화시키고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제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Murnen, Wright, & Kaluzny, 2002). 이와 같은 여성주의 이론은 성폭력과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성폭력 현상을 설명하는 다변인 이론에서 성적 공격성에 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Marshall & Barbaree, 1989).

남성과 여성은 생의 초기부터 매우 다르게 사회화 된다. 성역할 사회화 과정 동안에 부여되고 학습되는 역할들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행동 및 신념에 영향을 준다. 성역할 사회화는 성적 행동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형의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성적 상호작용에서 더욱 더 지배적이며 성적인 주도권을 잡도록 사회화된다. 반면에 여성들은 보다 수동적이 되도록 사회화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강간에 대한 태도들은 성역할 고정관념, 특히 성적 행동과 관련된 고정관념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들어 강간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인지적 이론과 방법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Langton, 2007; Ryan, 2004). Ward (2000)같은 연구자들은 성범죄자들의 범죄 지지신념과 이러한 신념들이 기억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틀(implicit theory 내현이론이라는 용어로 불림)을 구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강간범들은 여성들의 신념, 욕망 및 미래 의도를 예측할 경우 근거로 들이댈 수 있는 범죄지지 도식(schema)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와 질문지를 통하여 Polaschek 등(Polaschek & Gannon, 2004; Polaschek & Ward, 2002)은 강간범들은 다섯 가지 내현 도식들의 조합을 갖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것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즉, 여성들은 성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성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신념), *여자들은 위험하다* (즉 여자들은 악의적이고, 사람을 기만하며, 예측 불가능하여 믿을 수 없다는 신념), *자책* (즉 남성 지상주의와 통제권의 신념),

그리고 통제불능(즉 강한 성적 충동과 욕구는 통제될 수 없다는 신념) 등이다. 이러한 신념들은 성폭력과 관련된 통념들(예, 강간통념 혹은 성희롱 통념)의 근간이 되는 사고들을 반영하여, 결국 여성을 잘못 이해하고, 강간·지시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내현 도식(schema) 이론은 수많은 자기-보고 연구들을 통하여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에게 형성된 다양한 성적 태도와 성향 혹은 통념인식이 성폭력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 성폭력 통념의 기능과 성별 지각

강간통념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당시 Brownmiller(1975)나 Burt (1980)같은 연구자들은 강간은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기제이고, 강간통념의 승인은 이러한 성적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제안하였다(Maxwell & Scott, 2014). 자기-보고에 따르면, 남자들의 강간통념 수용을 발화하는 것은 성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념은 도식(schema)의 한 종류로 우리가 성폭력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한다. 심리학적으로 도식들은 복잡한 정보들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들을 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간격들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도와준다(홍대식, 2007). 그러나 이러한 도식은 정보처리의 단순화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고민 없이 당연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통념은 구성원들의 인식 속에서 쉽사리 수정되지 않고 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강간통념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광범위하면서 꾸준히 유지되어온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작용을 하는 태도와 신념들”로 정의된다(Lonsway & Fitzgerald, 1994). 따라서 강간통념은 강간과 강간피해자 및 강간범에 관한 편파되고, 고정관념화 되거나 혹은 잘못된 신념을 말하는데(Burt, 1980), 이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nsway & Fitzgerald, 1994).

또한 강간통념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공격을 정당화하거나 사소한 일로 치부하게 하며, 따라서 잠재적 강간범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최소화하도록 허용한다(Bohner, Siebler, & Schmelcher, 2006). 강간통념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조장하기도 한다. 전형적으로 강간 통념은 강간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난을 받고 강간범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신념들을 양산해 낸다(Lambert & Raichle, 2000).

성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강간통념과 더불어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회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다. 성희롱 통념은 “성희롱에 관한 편파되고 고정관념화 되거나 잘못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광범위하면서 꾸준히 유지되어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희롱을 정당화하거나 부인하는 작용을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태도와 신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희롱 통념은 남성의 성희롱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이러한 통념들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가 다수인 남성의 경우는 폭력을 사소화하거나 부인 혹은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지만, 강간통념을 믿는 강간피해 생존자들은 상대방의 성적 공격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 사건이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Peterson & Muehlenhard, 2004).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강간통념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강간 피해를 신고하는데 주저하게 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며, 강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부정적 낙인으로 존재하게 된다(Wolitzky-Taylor et al., 2011). 강간 통념은 강간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며(Hammond, Berry, & Rodriguez, 2011),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Egan & Wilson, 2012). 따라서 강간통념수용을 확인하거나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그릇된 신념이 성폭행 생존자들에게는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은 성별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형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이러한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지선, 2011; Komorosky, 2003; Nagel et al., 2005). 대다수의 연구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강간-지지적인 태도를 승인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uarez & Gadalla, 2010).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에 있어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남학생들은 잠재적 가해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통념들을 더 수용하려 드는 반면 여학생들은 통념을 부정하여 수용도가 낮을 것으로 본다.

강간-지지적인 이념은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동(Hayes-Smith & Levett, 2010) 뿐만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 강간성향에 대한 자기-보고증가(Burgess, 2007)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남자에게 있어서 강간통념의 수용은 강간 성향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고(Malamuth, 1981; Malamuth & Check, 1986; Quackenbush, 1989), 심지어 성폭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조사했을 때 이들 변인에 선행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Bohner et al., 1998). 결국 이것은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강간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며, 또한 강간에 버금가는 성적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 실증적 연구(Koss et al., 1985; Malamuth, 1986)에서도 강간을 지지하는 태도가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자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남자 대학생을 변별해주는 소수의 변인들 중 하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적 공격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잠재적 수단으로 성폭력 관련 통념들을 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성적 공격자와 그들의 행동 특성

많은 연구에서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대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을 구분하는 태도 및 성적 이력을 조사하였다(Craig, 1990; Pollard, 1994).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다음 요인들 즉, 전통적인

성역할과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 승인(Koss, et al., 1985; Muehlenhard & Falcon, 1990), 그리고 강간과 여성에 대한 폭력사용 수용(Burt, 1980; Malamuth, 1986; Muehlenhard & Linton, 1987) 등이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박경(2008)이 남학생들의 과잉남성성과 강간통념수용이 성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Koss와 Dinero(1988)도 성에 관한 보수적 태도와 신념들,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착취적이라는 신념, 남성성과 관련된 부정적 가치관,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존립가능한 관계성 수단으로서 대인폭력의 수용 등이 성적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요인들 외에 성폭력 혹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태도 변인이 성차별주의(sexism)다. 전통적 성역할을 기반으로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주된 기조인 초기의 성차별주의는 개념상 성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변인이다. 기존의 성차별주의를 Glick과 Fiske(1996)는 두 가지 형태의 성차별주의,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구분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가 주된 특징이고,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하고 순종적인 여성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여성을 순수하고 순결한 존재로 바라보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일 여성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그 기대를 위반하게 되면, 그 여성은 더 이상 남자들에 의해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간주된다.

성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보수적이고 적대적인 성신념과 유사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는 달리,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Abrams 등(2003)은 높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인 조사 참여자들이 낮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인 참여자들에 비해 지인(acquaintance)강간의 사례에서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Glick과 Fiske(1996)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Burt(1980)의 강간통념수용도 간에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논문에서는 성적 괴롭힘으로 표현) 행동의 동기요인으로 성차별주의를 다룬 연구(김현정, 1998)가 있으나, 이 연구결과에서는 성차별주의가 성희롱의 가능성을 예측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 공격, 즉 성폭력은 자신의 권력 혹은 물리력을 도구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강제를 통하여 저질러지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폭력이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성적 공격자들의 공통된 속성에는 폭력성향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많은 범죄 유목에서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호작용에서 폭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들의 범죄 이력과 일반 행동에서, 강간범들은 아동성범죄나 성추행범들보다는 다른 유형의 폭력범죄자들과 훨씬 더 닮은 구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간범들의 범죄 이력은 다양하면서도 일반화된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성범죄 외에도 전형적으로 폭행, 절도, 빈집털이 및 약물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강간범들은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Gannon et. al., 2008; Miller, 2013).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은 공격성에 대한 일반적 성향의 표출로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공격적 행동을 범하려는 일반 경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성적 공격에 대한 높은 위협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적 공격은 일반적으로 높은 공격 성향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Wilson et al., 2015). 이와 같은 설명은 몇몇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성적 공격과 비성적 공격간의 통계적 관계성이 확인되었다(Lalumiere et al., 2005). 범죄 통계치 상으로 폭력이나 절도와 같은 비성적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강간범죄의 발생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Finkellor & Jones, 2004; Quimet, 2002).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본다면 성적인 공격자와 비공격자 간에는 성역할 관련 태도, 즉 성역할 고정관념, 반여성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등과 대인폭력 수용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적 충동 혹은 흥분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여성주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 혹은 권력욕구라는 측면이 부각되기도 했고, 근래에는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는 시각도 등장하였다. 특히 부적절한 성-인지의 보유가 개인으로 하여금 성 범죄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적 공격자 혹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념들의 속성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태도 및 행동특성들, 그리고 강간통념과 같은

그릇된 사회적 신념들이 (데이트)성폭력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의 연구 흐름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이들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의식 차원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공격적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첫째,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성폭력 통념(강간통념, 성희롱통념) 수용도를 보일 것이다.

둘째, 남학생들이 지각하는 성폭력 통념은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셋째, 공격적 성행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남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더 높은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도를 보일 것이며, 성역할 관련 태도 상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 방법 및 절차

### 조사대상

조사는 수도권 일대 2개 대학교(I대학교와 G대학교)와 충청권 1개 대학교(S대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00부를 배포하여 368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을 불성실하게 한 8부를 제외한 360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사 대상은 총 360명(남: 171명, 47%), (여: 189명, 53%)이었으며,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86명(23.9%), 2학년은 134명(37.2%), 3학년



은 50명(13.9%), 4학년은 88명(24.45%), 무응답 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39세였다. 한편 남학생 171명중 군 의무를 필한 학생은 96명(56.15%), 미필자는 70명(40.92%) 그리고 면제는 5명(2.9%)이었다.

## 조사도구

### 성폭력 관련 통념

**강간통념.** 강간통념수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외국연구에서 사용되었던 Lottes(1988)의 강간지지척도와 Illinois 대학의 강간통념척도(Payne, Lonsway, & Fitzgerald, 1999)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하였고, 이석재(1999)의 척도 그리고 국내 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시한 통념을 수집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문항 재구성은 Polaschek 등(Polaschek & Gannon, 2004; Polaschek & Ward, 2002)이 제시한 내현 도식 중 통제불능성(즉 강한 성적 충동과 욕구는 통제될 수 없다는 신념)을 반영하여 가해자의 성적 욕구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으로 새로이 구성된 강간통념 척도는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alpha$ 를 구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주성분분석)을 통하여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6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요인들에 대해서 요인 I(고유가: 7.96, 설명변량: 33.19%)은 “피해자 비난”으로 명명하였고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  $\alpha$ 는 .8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요인 II(고유가: 2.42 설명변량: 10.09%)에 대해서는 “상대 행동에 대한 오해”로, 요인 III(고유가: 1.98, 설

명변량: 8.25%)에 대해서는 “책임귀인”으로, 요인 IV(고유가: 1.29, 설명변량: 5.38%)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으로, 요인 V(고유가: 1.27, 설명변량: 4.88%)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욕망”으로 명명하였으며, 또한 신뢰도를 구한 결과 각각 .813, .806, .750, .7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통념.** 성희롱 통념은 김정인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5점척도 4개의 하위요인(과민반응 요인, 행위오해 요인, 피해자책임 요인, 피해과소평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희롱 통념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인 Cronbach  $\alpha$ 를 구한 결과, 요인 I은 .804, 요인 II는 .790, 요인 III은 .832, 요인 IV는 다른 요인들보다 낮은 .52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인폭력수용

대인폭력은 Burt(198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개념은 폭력을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보고 개인 간의 폭력을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폭력수용은 완력과 강압이 친밀한 관계나 성적인 관계에서 응종(應從)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신념을 말한다. 7개의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국 이 척도는 완력과 강압이 친밀한 관계나 성적인 관계에서 응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성역할 관련 변인들

성역할과 관련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Burt(1980)의 연구에서 사용된 역할고정관념,

Sinn(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반여성주의, 그리고 김현정(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선정하였다. 각 척도는 모두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내용을 더 많이 수용하거나 동의함을 의미한다.

**성역할 고정관념.**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행동의 적절성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일련의 공유된 기대와 관련된 신념들을 측정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alpha$ 는 .7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 여성주의.** 여성성 혹은 여성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가치절하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alpha$ 는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원래 적대적 성신념을 연구변인으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내용이 유사하여 대체된 것이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성희롱에 대한 동기를 측정하고자 Glick과 Fisk(1996)가 제안한 것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 지배주의,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적대적인 형태의 성욕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여성차별주의적인 부정적 감정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비록 성차별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기초를 갖는 것으로, 여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는 것, 그리고 이성애적 친밀감을

추구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김현정, 1997; p.16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김현정(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8개 문항으로 Cronbach  $\alpha$ 는 .847이었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7개 문항으로 Cronbach  $\alpha$ 는 .632였다.

### 공격적 성행동

성폭력 행동 중 데이트 강간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Mosher(1988)의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적 성행동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원문의 일부 내용은 실정법에 위배될 정도로 강력한 행동들이어서 연구용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제외한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우리 실정을 감안하고 조사 대상이 대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현실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들로 변형하여 문항들을 완성하였다. 척도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었다면 0, 한 번은 1, 두 번은 2, 세 번은 3, 네 번은 4, 자주 있었다면 5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 척도의 신뢰도를 구한 결과 Cronbach  $\alpha$ 는 .94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질문지는 총 368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한 36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일차적으로 성폭력 관련 통념에서 남녀 지각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주된 관심사는 공격적 성행동이므로 자료 분석은 남학생들에 국한된 것들이다. 성폭력에 관한 통념

들, 대인폭력수용 그리고 성역할 관련 태도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의 성폭력 관련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성역할 관련 변인들 상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성폭력 통념에 관한 남녀 간의 인식 차이

성폭력(강간, 성희롱) 통념 및 각각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남녀 간의 인식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희롱

표 1. 성폭력 통념에 대한 남녀 비교

	성별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값(*유의도)
강간 통념	남학생(N=171)	1.94(.57)	.14	2.58*
	여학생(N=189)	1.80(.50)		
피해자 비난	남학생(N=171)	1.67(.57)	.15	2.25*
	여학생(N=189)	1.52(.50)		
상대행동에 대한 오해	남학생(N=171)	1.81(.66)	.26	3.82**
	여학생(N=189)	1.55(.60)		
책임귀인	남학생(N=171)	2.32(.94)	.22	2.43*
	여학생(N=189)	2.10(.80)		
범죄성립	남학생(N=171)	1.42(.50)	.15	2.97**
	여학생(N=189)	1.27(.44)		
가해자의 욕망	남학생(N=171)	2.83(1.14)	-.23	-2.06**
	여학생(N=189)	3.07(1.01)		
성희롱 통념	남학생(N=171)	2.08(.58)	.26	4.58**
	여학생(N=189)	1.81(.50)		
과민반응	남학생(N=171)	2.06(.71)	.35	5.30**
	여학생(N=189)	1.71(.55)		
행위오해	남학생(N=171)	2.41(.70)	.37	5.29**
	여학생(N=189)	2.04(.62)		
피해자 책임	남학생(N=171)	1.94(.77)	.20	2.56*
	여학생(N=189)	1.74(.68)		
피해과소평가	남학생(N=171)	1.75(.59)	.03	.49 n.s.
	여학생(N=189)	1.72(.53)		

\* = P < .05, \*\* = P < .01 n.s. = non significant

통념 하위요인 중 피해과소평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첫 번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성폭력 관련 통념들에 대한 남녀 간의 지각차를 비교한 결과 강간통념( $t=2.58, p<.05$ )과 성희롱 통념( $t=4.58, p<.01$ )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념 각각의 하위 요인별 남녀 차를 확인한 결과 강간 통념에서는 5가지 모두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통념 하위요인들의 경우, 남학생들은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t=2.25, p<.05$ ), 상대행동에 대한 오해가 더 컸으며( $t=3.82, p<.01$ ), 강간의 피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았으며( $t=2.43, p<.05$ ), 강간죄 성립에 대해서 느슨한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 $t=2.91, p<.01$ )이 있었다. 반면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고 강간의 원인이라는 ‘가해자의 욕망’ 요인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이를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t=-2.06, p<.05$ ).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조사 대상자들은 ‘가해자의 욕망’ 요인과 ‘피해자 책임’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념 수용도를 보여주었으며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인 것은 ‘상대행동에 대한 오해’부분이었다.

성희롱 통념 하위요인과 관련해서는 ‘피해과소평가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통념 수용도를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성희롱을 피해자들이 과민반응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t=5.30, p<.01$ ), 대부분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들이 행위자들의 행동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t=5.29, p<.01$ ), 성희롱 사건은 평상시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t=2.56, p<.01$ ). 아울러 남녀 학생 모두 가장 높은 수용도를 보이고,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인 것은 ‘행위오해’ 요인이었다.

남학생 대상 성폭력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상관관계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구를 통해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확인된 성폭력 통념, 대인폭력수용 그리고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 선정된 모든 변인들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성폭력 통념, 대인폭력수용과 성역할 관련

표 2. 성폭력 통념, 대인폭력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상관(남학생)

	강간통념	성희롱통념	대인폭력수용	고정관념	반여성주의	성차별주의
강간통념	1	.821**	.297**	.571**	.500**	.509**
성희롱통념	.821**	1	.335**	.500**	.450**	.570**
대인폭력수용	.297**	.335**	1	.301**	.336**	.222**
고정관념	.571**	.500**	.301**	1	.517**	.528**
반여성주의	.500**	.450**	.336**	.517**	1	.315**
성차별주의	.509**	.570**	.222**	.528**	.315**	1

\* = P < .05, \*\* = P < .01 n.s. = non significant

태도들간의 상관관계는 주 연구대상인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결과 강간통념과 성희롱통념간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 $r=.821, p<.01$ ), 이러한 결과는 두 통념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공통점을 내포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강간통념은 대인폭력수용( $r=.297, p<.01$ ), 성역할 고정관념( $r=.571, p<.01$ ), 반여성주의( $r=.500, p<.01$ ), 성차별주의( $r=.509, p<.01$ )와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통념의 경우는 대인폭력수용( $r=.335, p<.01$ ), 성역할 고정관념( $r=.500, p<.01$ ), 반여성주의( $r=.450, p<.01$ ), 양가적 성차별주의( $r=.570, p<.01$ )와 유의미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들 통념들은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추가로 강간통념 및 성희롱 통념의 하위요인들과 성차별주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폭력 하위요인들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가해자의 욕망( $r=.138, p>.05$ )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강간통념에서는 범죄성립( $r=.021, p>.05$ )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성희롱 통념에서는 피해과소평가( $r=.114, p>.05$ )를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 및 성희롱 통념에서 높은 상관을 보인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여성을 비난하고 적개심을 내보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달리 여성을 전통적 성역할의 틀에 가두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향은 만일 여성이 전통적 역할 규범을 어긴다거나 남성 중심의 정숙함

표 3. 성폭력 통념의 하위요인들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남학생)

		적대적 차별주의	온정적 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적대적 차별주의	1	.253**
	온정적 차별주의	.253**	1
강간통념	피해자 비난	.425**	.285**
	상대행동에 대한 오해	.517**	.193*
	피해자 책임귀인	.464**	.154*
	범죄성립	.353**	.021
	가해자의 욕망	.138	.197**
	과민반응	.639**	.200**
성희롱 통념	행위오해	.556**	.203**
	피해자 책임	.466**	.266**
	피해과소평가	.219**	.114

\* = P < .05, \*\* = P < .01 n.s. = non significant

에서 벗어나 성폭력과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강간통념 하위요인에서 피해자 비난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r=.285, p<.01$ ), 성희롱통념 하위요인에서도 피해자 책임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r=.266, p<.01$ ).

성적 공격 집단과 비공격 집단 간의 성폭력통념,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태도 상의 차이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에 성폭력통념,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인폭력수용과 반여성주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이 두 가지만 지지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성적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인폭력수용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조사대상자 중에서 성적 공격 척도 10개 문항 중에서 한 번이라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표시한 응답자는 171명 중 65명(38%)이었다. 이들을 성적 공격집단으로 설정하고, 한 번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응답자들을 성적 비공격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두 집단의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태도들을 비교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성적 공격집단은 비공격집단에 비해서 대인 폭력수용( $t=3.48, p<.01$ )과 반여성주의( $t=2.16, p<.05$ )에서 높은 성향을 보여 주었다. 성적 공격집단에서 대인 폭력수용도가 높다는 것은 이들이 상대와 싸워야 할 상황 혹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상대방이 여성이라도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성공격·비공격 집단의 성폭력 통념, 대인폭력수용과 성역할 태도에 대한 비교결과

	경험 유무	평균(표준편차)	평균차	t값(*유의도)
강간통념	유(N=65)	1.96(.54)	.03	.35 n.s.
	무(N=106)	1.93(.58)		
성희롱통념	유(N=65)	2.14(.54)	.10	1.14 n.s.
	무(N=106)	2.04(.61)		
대인폭력수용	유(N=65)	2.15(.57)	.29	3.48**
	무(N=106)	1.87(.49)		
성역할 고정관념	유(N=65)	2.21(.61)	.02	n.s.
	무(N=106)	2.19(.61)		
반여성주의	유(N=65)	2.14(.58)	.17	2.16*
	무(N=106)	1.97(.42)		
양가적 성차별주의	유(N=65)	2.48(.48)	-.02	-.21 n.s.
	무(N=106)	2.50(.56)		

\* = P < .05, \*\* = P < .01 n.s. = non significant

또한 이들은 반여성주의적 태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집단이 여성성 혹은 여성 성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가치절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들을 비하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의 성희롱 통념 및 강간 통념의 하위요인들을 비교한 결과 성희롱 통념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강간 통념 하위요인에서 '상대행동의 오해' 요인만 유의미한 차이( $t=2.14, p<.05$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성폭력 그 중에서도 데이트 상황에서의 공격적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먼저 대학생들의 성폭력 인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폭력(강간, 성희롱) 통념에 대한 남녀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통념, 대인폭력수용, 성역할 관련 태도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데이트 성폭력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격적 성행동 척도를 이용하여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으로 구분하여 성폭력 통념수용,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관련 태도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3가지 연구결과에 입각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통념에 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

성폭력 통념에 관해서는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은 가해-피해 구도(남자는 주로 잠재적 가해자, 여자는 주로 잠재적 피해자)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학생들은 (가해)상황을 상정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여학생들은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피해자 비난과 책임을 부인하려는 태도가 남녀 간의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본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결과를 보면 강간통념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욕망요인을 제외한 4개 요인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통념수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해서 더 전통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성들보다 강간통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들(Anderson, Cooper, & Okamura, 1997; Check & Malamuth, 1985; Burt, 1980; Lonsway & Fitzgerald, 1994)을 지지하는 것이며, 또한 남성은 여성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더 많으며, 강간사건을 부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들(Cook, 1995; Weyer, Bodenhausen, & Gorman, 1985)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강간통념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보여 준 것이 상대행동에 대한 오해 부분이었다. 평균점수상으로는 낮은 통념 수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었다. 이것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방 특히 여성의 태도나 행동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성의 '거절'이나 '싫다'라는 표현을 의례적인 것으로 혹은 반대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성폭력 예방 단체에서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Only Yes means Yes." "No always means No."에 대한 인식을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분명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강간통념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귀인'과 '가해자의 욕망' 요인에서 남녀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치밀하게 계획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부장적 이중 성규범(여성에게만 정절과 정숙을 강조)이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강간의 원인을 피해자유발에서 찾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왜곡을 남성의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이며, 이 통념은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남성에게는 가해자의 욕망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이 남성의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 때문이라는 통념에 여학생들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앞서의 피해자 책임귀인과 함께 계획된 범죄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혹은 가해자 자신의 통제불능성, 즉 가해자의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인정케 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러한 통념들을 바로 잡아주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성희롱 통념과 관련해서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들의 과민 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들이 행

위자들의 행동을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강간 통념에서는 강간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대 여성의 행동을 오해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성희롱 통념에서는 피해자들이 행위자의 행동을 오해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피해과소 평가 부분은 다른 통념들에 비해서 남녀 모두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성희롱이 피해자들에게 여타의 성폭력만큼이나 심각한 고통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가져다주는 부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가 가지는 어감과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로 인식되는 성희롱 관련 행동들로 인하여 남녀 학생들이 그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남녀 학생들이 보이는 통념을 근거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은 여성의 과민반응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며, 다른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유발하는 사건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통념들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분석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서, 강간통념과 성희롱 통념에 대해서 4개의 변인(대인폭력수용, 성역할 고정관념, 반여성주의,



성차별주의) 모두가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통념 수용에 태도 변인의 집락들(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적대적 성신념, 대인폭력수용)이 강력한 예측인이었다는 Burt(198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며, 또한 강간통념수용은 적대적 성신념 및 대인폭력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Check & Malamuth, 1985; Fonow, Richardson, & Wemmerus, 1992; Reilly, Lott, Caldwell, & DeLuca, 1992)을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남자 대학생들 사이에서의 강간통념수용이 부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보유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음을 발견한 Davies, Gilston 및 Rogers(2012)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며, 전통적인 성역할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간통념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Johnson 등(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Chapleau, Oswald 및 Russell(2007)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수용 간의 관계성을 확인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비슷한 이 개념을 더 많이 지지할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Yamawaki(2007) 역시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역할의 전통성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강간-지지적인 신념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성차별주의와 관련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하위요인과 성폭력 통념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을 추가로 보았던 주된 목적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피해자 비난(혹은 책임)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강간 통념과 성희롱 통념 모두에서 일관되게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온

정적 성차별주의는 강간통념에서 '피해자 비난' 요인, 성희롱 통념에서 '피해자 책임' 요인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순수해야 하고 특별해야 하며 보호 받아야만 한다는 신념을 승인한다(Glick 등, 1997). 하지만 이들은 여성이 자신들의 기대를 위반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는 상황(예, 서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 acquaintance rape, 혹은 낮은 귀가 길의 성추행 사례)에 직면하게 되면, 그녀를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각하고 그러한 사건 발생에 책임을 지우며, 그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성폭력 통념 하위요인들 중 피해자 책임 혹은 비난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의 통념과 태도상의 차이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의 성폭력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상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대인폭력 수용과 반 여성주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공격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더 강한 적대적 성신념을 지니며 대인폭력을 더 많이 수용하였다는 연구결과들(Burt, 1980; Koss & Diero, 1987; Malamuth, Check, & Briere, 1986)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간범들이 일반 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범죄행동에서 다양한 모습과 함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Gannon, Collie, Ward, & Thakker, 2008)를 놓고 볼 때,

성적 공격집단이 대인폭력 수용도가 높다는 것은 이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다. 다른 연구결과(Smallbone et al., 2003)에서도 강간은 여러 번의 폭력전과를 가진 다양한 일반 범죄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교 문화연구를 통해서 볼 때, 개인 간의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폭력이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강간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eggy, 1981). 따라서 성적 공격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대인폭력수용이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반여성주의는 성적 공격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Marshall과 Hambly(1996)는 강간범들이 여성에 대한 적대감 측정치 상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적대감은 일부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성적으로 공격하려는 동기요소를 형성하고 그러한 행동을 촉발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에서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억제를 해제하는 기능을 하여 강간을 포함한 각종 성폭력의 발생조건을 형성한다. 대인폭력 수용이 폭력에 대한 개인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공격적 성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 학내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예, 공감 능력배양, 갈등해결)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성폭행범들의 특징 중 하나가 높은 강간-지지적 태도이고, 이전 연구에서도 대부분 강간통념이 강간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적 성행동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조사대상자의 차이일수도 있겠다고 추정해본다. 기존의 외국 연구에서처럼 범죄자나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경우, 이들은 이미 범죄행위를 저지른 다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혹은 합리화 할 수 있는 통념들을 적극적으로 더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성적 공격집단이라 하더라도 성폭행범들만큼 강력한 강간-지지적 태도를 갖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강간통념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폭력 통념상에서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인식들이 성폭력 통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적 공격집단과 비공격집단 간의 통념과 태도상의 인식차이를 확인한 결과 대인폭력수용과 반여성주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강간통념 하위요인 가운데 '상대행동에 대한 오해' 요인에서 이들 집단 간의 시각차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성폭력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통념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공격적 성행동 척도를 통한 공격집단 구성과 더불어 그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대인폭력수용과 반여성주의로 드러남으로써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통념에 대한 인식 차이 확인을 통하여 남녀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시 강조해야 할 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폭력성을 완화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희순 · 이은숙 (2010).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과 관련 요인.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27(3).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 김양희 (2013). 젠더기반폭력 무엇이, 왜 문제인가?. The Asian. 2013.
- 김현정 (1998). 직장내 성적 괴롭힘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동기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인 · 손영미 · 김효창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1(4), 377-397.
- 남원경 (2008). 미혼남성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 범죄분석(2014). 범죄분석(2003).
- 박 경 (2008). 과잉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 박지선 (2011). 경찰대 학생들의 강간통념 수용도: 일반대 학생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대학논문집, 제 31집, 237-267.
- 서경현 · 이경순 (2002).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간호학회지, 2, 75-98.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 131-148.
- 이석재 ·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9, 97-116.
- 장윤경 (2002).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데이트 성폭력 인지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빈 (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학회지, 2(2). 39-59.
- 한국여성민우회 (2013). 성폭력 상담소 2013년도 상담현황 및 분석.
- 한국여성의 전화 (2009). 성폭력 상담소 2007-2008 상담결과 분석.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2001년 상담통계
- 홍대식 (2007). 사회심리학. 박영사, 서울.
- Abrams, D., Viki, G. T. N.,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11-125.
-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3).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II: Reference group executive summary*. Hanover, MD: Author.
- Anderson, K. B., Cooper, H., & Okamura, L. (1997). Individual differences and attitudes toward rape: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295-315.
- Baron, L. & Straus, M. A. (1987). Four theories of

- rape: A macrosociological analysis. *Social Problems*, 34, 467-489.
- Belknap, Joanne. (2001).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Group.
- Bohner, G., Reinhard, M., Rutz, S., Sturm, S., Kerschbaum, B., & Effler, D. (1988). Rape myth as neutralizing cognitions: Evidence for a casual impact of anti-victim attitudes on men's self-reported likelihood of rap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257-268.
- Bohner, G., Siebler, F., & Schmelcher, J. (2006). Social norms and the likelihood of raping: Perceived rape myth acceptance of others affects men's rape procl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286-297.
-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 Burgess, G. H. (2007). Assessment of rape-supportive attitudes and beliefs in college men: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ape Attitudes and Beliefs Sca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 973-993.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hapleau, K. M., Oswald, D. L., & Russell, B. L. (2007). How ambivalent sexism toward women and men support rape myth acceptance. *Sex Roles*, 57, 131-136.
- Check, J. V. P. & Malamuth, N. M. (1985). An empirical assessment of some feminist hypotheses about rape.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8, 414-423.
- Check, J. V. P., Malamuth, N. M., Elias, B., & Barton, S. (1985). On hostile ground. *Psychology Today*, 56-61.
- Collings, S. J. (1994). Sexual aggression: A discriminant analysis of predictors in a non-forensic sample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24, 35-38.
- Craig, M. E. (1990). Coercive sexuality in dating relationships: A situation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393-423.
- Davies, M., Gilston, J., & Rogers, P. (2012).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rape myth acceptance, female rape myth acceptance, victim blame, homophobia, gender roles, and ambivalent sex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 2807-2823.
- Egan, R. & Wilson, J. C. (2012). Rape victims' attitudes to rape myth acceptance. *Psychiatry, Psychology & Law*, 19, 345-357.
- Finkelhor, D. & Jones, L. M. (2004). *Explanations for the decline in child sexual abuse cases*. Bulleti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Fonow, M. M., Richardson, L., & Wemmerus, V. A. (1992). Feminist rape education: Does it work? *Gender and Society*, 6, 108-121.
- Gannon, T. A., Collie, R. M., Ward, T., & Thakker, J. (2008). Rape: Psychopathology, theory, an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982-1008.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Hammond, E. M., Berry, M. A., & Rodriguez, D. N. (2011). The influence of rape myth acceptance, sexual attitudes, and belief in a just world on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in a date rape scenario. *Legal & Criminological Psychology*, 16, 242-252.
- Herman, J. L. (1990). Sex offenders: A feminist perspective. In W. I. Marshall, D. R.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pp. 117-193). New York: Plenum.
- Heyman, R. E., O'Leary, K. D., & Juriles, E. N. (1995). Alcohol and aggressive personality styles: Potentiators of serious physical aggression against wiv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44-57.
- HOSB (2009). *Home Office Statistical Bulletin 11/09*. Crime in England & Wales, 2008/9: London: Home Office.
- Johnson, B. E., Kuck, D. L., & Schander, P. R. (1997). Rape Myth acceptanc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Sex Roles*, 36, 693-707.
- Komorosky, D. (2003). *Predictors of Rape Myth Acceptance Among Criminology and Non-Criminology Student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Criminology,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Koss, M. P. (1992). The underdetection of rape: Methodological choices influence incidence estimates. *Journal of Social Issues*, 48(1), 61-75.
- Koss, M. P. & Dinero, T. E. (1987).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among a national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528, 133-147.
- Koss, M. P., Leonard, K. E., Beezley, D., & Oros, C. (1985). Nonstranger sexual aggression: A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ndetected offenders. *Sex Roles*, 12, 981-992.
- Lalumiere, M., Harris, G., Quinsey, V., & Rice, M. (2005). The causes of rape: Understand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Male Propensity for Sexual Aggres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ambert, A. J. & Raichle, K. (2000). The role of political ideology in mediating judgments of blame in rape victims and their assailants: A test of the just world, personal responsibility and legitimization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7), 853-863.
- Langton, C. (2007). Rape related cognition: Current research. In T. A. Gannon, T. Ward, A. R. Beech, & D. Fisher (Eds.), *Aggressive Offenders' Cognitio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Chichester, UK: Wiley.
- Linton, D. N., McDonel, E. C., & McFall, R. M. (1987). Heterosocial perception in rap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7-21.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 Malamuth, N. M. (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 138-157.
- Malamuth, N. M (1986). Predictors of naturalistic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53-962.

- Malamuth, N. M. (1987).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sexual aggression: Combining measures of past behavior with present likelihood.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528, 123-132.
- Malamuth, N., Check, J. V. P., & Briere, J. (1986).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aggression: Ideological, aggressive, and sexu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30-340.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89). Sexual violence. In K. Howell & C., R. Hollin(Eds.), *Clinical Approaches to Violence* (pp. 205-246). Chchester: Wiley.
- Maxwell, L. & Scott, G. (2014). A review of the role of radical feminist theories in the understanding of rape myth acceptance. *Journal of Dexual Aggression: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forum for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20(1), 40-54.
- Miller, L. (2013).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Patterns and motiv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 506-519.
- Muehlenhard, C. L., & Falcon, P. L. (1990). Men's heterosocial skill and attitude toward women as predictors of verbal sexual coercion and forceful rape. *Sex Roles*, 23, 241-259.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4, 186-196.
- Murnen, S. K., Wright, C., & Kaluzny, G. (2002). If "boys will be boys", then girls will be victims?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esearch that relates masculine ideology to sexual aggression. *Sex Roles*, 46, 359-375.
- Nagel, B., Matsuo, H., McIntyre, K. P., & Morrison, N. (2005). Attitudes toward victims of rape: Effects of gender, race, religion, and social cla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 725-737.
- Peggy, S. (1981).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rape: A cross 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37(4), 8-18.
- Peterson, Zoe D. & Charlene L. Muehlenhard. (2004). "As it Rape? The Function of Women' Rape Myth Acceptance and Definitions of Sex in Labeling Their Own Experiences." *Sex Roles*, 51, 129-144.
- Polaschek, D. L. L. & Gannon, T. A. (2004). The implicit theories of rapists: What convicted offenders tell u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6, 299-315.
- Polaschek, D. L. L. & Ward, T. (2002). The implicit theories of potential rapists: What our questionnaires tell u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 385-406.
- Quackenbush, R. L. (1989). A comparison of androgynous, masculine sex-typed and undifferentiated males on dimensions and attitudes toward rap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318-342.
- Quackenbush, R. L. (1991). Attitudes of college men toward women and rap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2, 376-377.
- Quimet, M. (2002). Explaining the American and Canadian crime "drop" in the 1990's.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4, 33-50.
- Reilly, M. E., Lott, B., Caldwell, D., & DeLuca, L. (1992). Tolerance for sexual harassment

- related to self-reported sexual victimization. *Gender and Society*, 6, 122-138.
- Russell, D. E. H. (1984). *Sexual Exploitation: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CA, Sage.
- Ryan, K. M. (2004). Further evidence for a cognitive component of rap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 579-604.
- Shultz, S. K., Scherman, A., & Marshall, L. J. (2000). Evaluation of a university-based date rape prevention program: Effect on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rap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 193-201.
- Smallbone, S. W., Wheaton, J., & Hourigan, D. (2003). Trait empathy and criminal versatility in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 49-60.
- Suarez, E. & Gadalla, T. M. (2010). Stop blaming the victim: A metaanalysis on rape myth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1), 2010-2035.
- Ward, C. (1988). The attitudes toward rape victims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127-146.
- Ward, T. (2000). Sexual offenders' cognitive distortions as implicit theori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 491-507.
- Wilson, L., Mouilso, E., Gentile, B., Calhoun, K., & Zeichner, A. (2015). How is sexual aggression related to nonsexual aggression?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4, 199-223.
- Wolitzky-Taylor, K. B., Resnick, H. S., McCauley, J. L., Amstadter, A. B., Kilpatrick, D. G., & Ruggiero, K. J. (2011). Is reporting of rape on the rise? A comparison of women with reported versus unreported rape experiences in the national women' study-replication. *Th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 807-832.
- Wyer, R. S., Bodenhausen, G. V., & Gorman, J. F. (1985). Cognitive mediators of reactions to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324-338.
- Yamawaki, N. (2007). Rape perception and the function of ambivalent sexism and gender-role traditiona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 406-423.

1차원고접수 : 2015. 04. 26.

심사통과접수 : 2015. 08. 26.

최종원고접수 : 2015. 09. 06.

## The Effects of sexual violence myths,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s on aggressive sexual behavior

Choi In Sook<sup>1)</sup>

Kim Jeong-In<sup>2)</sup>

<sup>1)</sup>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sup>2)</sup>Research Institute for Diversi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ceptance of sexual violence myths,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s on aggressive sexual behavior. The participants were 360 students (171 males, 189 females). T-test,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results, male students generally showed higher degree of acceptance in myths on rape and sexual harassmen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at there are differences about the attitudes on sexual violence myths (rape, sexual harassment),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and sex role related between sexually aggressive group and non-aggressive group. In this study,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yths on sexual violence,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s. Sexually aggressive group and non-aggressive group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anti-feminism attitude. Proposals for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related education through the result obtained are as follow; First of all, focus on alleviating the individual's violent act and strengthening the gender equality awareness is needed. Also, contents regarding the reforming of common notions that encourage the legitimacy or rationalization of aggressive sexual behavior should be included.

*Key words* : sexual violence myths, rape, sexual harassment, interpersonal violence acceptance, sex role related attitudes, aggressive sexual behavior